

2018 하나 더 메세나 프로젝트 심의 총평

2018년 '하나 더 메세나 프로젝트'는 총 21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1차로 행정심의를 거친 13건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서류 및 인터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예년에 비해 지원신청 수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한정된 예산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크게 몇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술창작분야입니다.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거나 기존 작품의 재창작 등 작품 활동이 주가 되는 단체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유통분야입니다. 기존의 작품에 조금 변화를 주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단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예술활동 단체들입니다. 생활문화예술활동 단체들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동호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활동으로 명성을 얻어 프로페셔널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순수 생활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 및 인터뷰를 통해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범주의 분류를 하게 되었고 이번 지원사업이 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지원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순위를 위에 열거한 순서대로 우선 지원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창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한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수혜를 받으신 단체들께는 축하말씀 및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들께는 비록 이번에는 안타깝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 박 종 찬(경기도문화의전당 문화사업본부장)

심의위원 박 현 준(한국메세나협회 Art & Business팀장)

심의위원 이 의 신(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장)

심의위원 이 현 아(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장)

심의위원 지 영 관(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작품플랫폼PD)